



# UNEP FI Korea Group Newsletter

September  
2011

## *Contents*

- UNEP FI 동향
- Asia Pacific 지속가능금융
- UNEP FI KG Activities
- New Publications
- Register Now



## UNEP FI Global Roundtable

제13회 글로벌 라운드 테이블의 개최가 임박했다. 금융 산업 부문과 정책 입안자들 간의 이해 차이를 축소하고자 기획된 본 행사의 발표자로는 영국 전 총리 Gordon Brown, the Black Swan의 저자 Nassim Taleb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미래경제의 지속가능 안정성” 포함하여 총 16개 세션으로 구성 될 것이다. 세계 최초로 100명 이상의 연설자와 600명 이상의 참가자가 참가해 지속가능금융 분야 주요 이슈들에 대한 심층 있는 통찰을 하게 될 것이다.

- 기후 전망 - 정책, 경쟁력과 성장: “기후 정책 vs. 일자리·경쟁력” 이슈에 대한 금융기관들의 관점을 알아본다.
- 리스크의 변화, 변화의 리스크: UNEP FI의 지속가능보험 성명서가 어떻게 장기적인 시스템 리스크를 축소해 줄 것인지, 또 어떻게 자원활용 효율성, 저탄소, 그리고 지속가능한 세계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는지 연구한다.
- REDDy-Set-Grow- 산림 탄소 시장: 산림 탄소 시장에서의 리스크와 투자 기회들을 살펴본다.

[상세내용 참조](#)



Rick Lacaille



Terry Vaughan



## 오세아니아 UNEP FI 지속가능보험 원칙 회의 개최

오세아니아에서 네 번째 유엔 지역 자문 소집회의가 열렸다.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8월 11, 12 이틀 동안 개최된 본 회의는 UNEP FI, 국제 금융 부문 그리고 뉴질랜드 최대 환경 보험사 Sovereign이 함께 주최하였다. 7회에 걸친 회의가 모두 종결되면, UNEP FI 지속가능보험 원칙은 비로소 보험회사들이 더 나은 친환경 경영, 성공적인 리스크 및 기회 관리를 하는데 있어 근본적인 기준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본 원칙에는 리스크 관리와 인수 결정 활동, 획기적인 보험 해결안, 그리고 천재지변에 의한 리스크, 약천후, 생태계 기능 저하, 인권 등의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활동을 촉진시키는 방법 등의 내용이 포함 될 것이다.

Sovereign 사의 CEO Charles Anderson은 "이것은 매우 큰 야망이지만 반드시 필요하고 또 실현 가능한 야망이기도 하다" 라고 말하면서 "성공적인 결실을 얻기 위해서는 지속가능보험 원칙이 산업 전체와 기업들의 일상처럼 적용되어야 한다. 본 회의는 토론의 장이 아닌, 약속의 장이다" 라고 덧붙였다.

[상세내용 참조](#)

## UNEP FI , 미국 투자자들과의 관계 재고



UNEP FI가 가장 최근 출범한 투자부문 사업부는 지난 8월 미국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독립 자문기관이자 책임 투자 부문의 전문가로 유명한 Trillium Asset Management, LLC사를 새로운 회원 기관으로 맞이했다. Trillium사의 CEO Matthew Patsky는 국제적인 경제난 극복이 시급한 만큼 UNEP FI 가입이 그야말로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진 것이며 UNEP FI의 가족이 되는 것은 금융위기를 극복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첫 걸음이라고 말했다. Trillium사는 1982년 설립 이래로 사회적 투자 분야에서 미국에서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인 선구자로 명성을 알리고 있다. 현재 10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관리 하고 있다.

[상세내용 참조](#)

## 2011 런던 임팩트투자, UNEP FI의 지지에 힘입어 9월 30일 개최

Impact Investing (임팩트투자) - 지난해 지속가능발전 분야에서 각광 받았었던 신생용어이다. Global Impact Investing Network (세계 임팩트투자 네트워크)가 2014년까지 5천억 규모로 성장할 수 있다고 예측 된 임팩트투자 시장은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예견 한다. 2011 런던 임팩트투자 행사에 참가해 임팩트투자 시장의 전반적인 이해를 도와보도록 하자.

### <주요 프로그램>

오프닝 연설: 의장 Steven McNab

오프닝 토론: 임팩트투자란 무엇인가?

토론 2: 대대적인 도전과제들을 지원하기 위한 효과적 파트너십 구현하기

토론 3: SRI 와 임팩트투자 비교

토론 4: 투자로 가는 방법, 여러 가지 투자 대안들이 갖는 메리트 평가

토론 5: 시장의 도전과제들과 장벽 넘기

사례연구1: 아프리카 의료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자금 조달

사례연구2: 인디아 클린에너지 프로젝트

토론 6: 임팩트투자 관리

폐회사

[상세내용 참조](#)



**Impact Investing 2011**  
Investments for profit, people  
and the planet  
London, 30 September

Environmental  
Finance  
CONFERENCES





## 필리핀정부, 신재생 에너지 투자 확대로 고용 창출 기대

필리핀 노동연구소(ILS)는 신재생 에너지 투자 확대를 통해 향후 20년간 녹색일자리 50,000여 개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필리핀은 “2009~2030년 필리핀 에너지계획(PEP)”에 따라 신재생 에너지원 사용발전소 개수를 2배 증대 할 계획이며, ILS는 동일 부문에서 친환경 기술과 관련된 일자리 창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의 경제적 유인책을 통하여 기업의 녹색 일자리 창출과 위험 관리 전략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언급했다.

### [상세내용 참조](#)

## 중국, 민간기업의 하이테크 분야 활약 - 500대 민간기업 중 절반이 하이테크 기업

최근 중국 공상연합회가 발표한 “2011년 500대 민영기업” 리스트에 랭크 된 기업 중, 240개 기업이 하이테크 기업으로 지정 되었으며, 360개 업체가 독자적인 연구 개발로 핵심 기술을 확보한 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하이테크 분야에서 민간기업의 활약이 두드러짐을 반증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2011년 500대 민영기업” 보고서에는 다음 주요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 2010년, 500대 민영기업 가운데 65.2%의 기업이 제품구조 개선을 통해 고부가 가치 제품 개발.
- 322개 기업이 47,120개 특허를 보유하고, 그 가운데 발명 특허가 43.8%에 이룸.
- 500대 민영기업의 핵심 기술과 장비 수준은 대부분 전국 선두 수준임.
- 2010년 기준, 500대 민영기업 가운데 440개 기업의 기술장비 수준이 국내 선진 수준 이상임.

### [상세내용 참조](#)

## UN지속가능발전센터, 비상을 위한 힘찬 날개 짓

유엔 경제 사회국(DESA: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은 금년 중 인천에 설립 될 예정인 UN지속가능발전센터의 개소 전 세미나를 8.25일 부터 26일 까지 인천 웨라톤호텔에서 개최했다. UN지속가능발전센터는 UN-DESA 소속으로 UN 회원국의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지원하고 각국의 지속가능발전 세계 정상회의 결과의 이행 상황을 연구 하는 것 등을 주로 하는 기관이다. 이번 세미나는 공식 개소 이전에 센터에 대한 국내외 인지도를 높이고, 개소와 함께 센터가 본격적으로 운영되도록 할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내년에 개최될 예정인 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Rio+20)를 앞두고 동 회의의 사무국인 DESA의 소속기관이 국내에 설립됨으로써 국내지속가능발전 논의의 수준과 우리나라의 위상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상세내용 참조](#)



## GM·상하이차, 전기차 공동 개발, 50%씩 합작 투자

미국의 제너럴모터스(GM)와 중국 1위업체인 상하이자동차그룹(SAIC)이 전기자동차 공동 개발을 위해 손을 잡는다. GM과 SAIC은 20일 성명을 통해 전기차를 공동으로 개발하기 위한 합작투자에 합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양사는 전기차 개발에 50%씩 동등하게 투자하기로 했다. 공동 개발되는 전기차는 중국 상하이에 위치한 기술센터에서 개발되며 중국에서 GM과 SAIC, 상하이GM 브랜드를 달고 판매된다. 세부적인 계약조건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그 동안 GM과 SAIC는 기술 개발·판매·디자인 등 분야에서 10개의 합작회사를 운영해왔으나 전기차 개발을 위한 협력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합작투자로 인해 중국 자동차 시장에서 GM이 갖는 영향력은 확대 될 전망이다.

[상세내용 참조](#)

## 지경부, 한-홍콩 녹색산업협력 강화해 나가기로

對韓투자유치활동과 산업협력 확대를 위해 화교자본의 중심지인 홍콩과 싱가포르를 방문 중인 김정관 지식경제부 차관은, 9월 5일(월), 그레고리 소(Gregory So) 홍콩 상무경제발전부 장관과 양자 회담을 갖고 녹색산업분야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차관은 녹색산업은 중국 내 환경 수요를 충족시킬 뿐 아니라 홍콩의 산업고도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 언급하고, 한-홍콩 모두 장점을 보유한 녹색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협력모델을 발굴하여 중국내수시장에 공동 진출해 나갈 필요성을 제시했다. 향후 환경플랜트, 그린카, 신재생 에너지, 그린IT 등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환경을 개선하는 홍콩 녹색산업시장에 한국기업의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같은 날 대한상외와 홍콩무역발전국(HKTDC) 주관으로 개최된 한-홍콩 녹색산업협력포럼에 참석한 김차관은 축사를 통해 홍콩의 자본력과 오랜 기간 축적한 중국시장 진출 경험과 한국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양국간 새로운 협력모델을 발굴하는 등 녹색산업발전에 한국과 협력할 것을 제안했다. 이번 포럼은 한국과 홍콩의 주요기업 대표와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한국 녹색산업의 강점과 홍콩과 중국에서의 녹색기업 진출기회 및 양국 녹색산업자원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상세내용 참조](#)



## 한국수출입은행

### 수출입銀, 중동자금 주선 위해 현지에서 뛰다

한국수출입은행은 9.16일부터 23일까지 사우디 아라비아, UAE, 이집트 등 중동 3개국을 돌며 정부기관, 발주처, 현지금융기관에 대한 통합 마케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수은은 중동의 양대 발주처인 사우디 국영 석유공사인 (Aramco) 와 아부다비 국영 석유 회사 (ADNOC) 를 포함하여, 이집트국영석유회사(EGPC), 두바이 전력공사(DEWA) 등 11개 주요 발주처를 만나 신규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중동, 북아프리카 등 이슬람 56개국으로 구성된 이슬람개발은행(IsDB)과는 우리기업이 중동은 물론 중동의 국가에서 추진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향후 양기관의 공동 금융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협의함으로써 향후 중동자금 활용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수출입은행은 2005년 이래 정유공장 건설, 발주·담수플랜트 등 13건 95억불 규모의 중동지역 프로젝트에 대해 중동자금을 활용, 공동 지원한 경험을 갖고 있으며, 이슬람개발은행과는 3건, 14억불 규모의 프로젝트를 공동 지원한 바 있다.

### KB국민카드, '그린(Green)카드' 경품 행사 마련

## KB 국민은행

KB국민카드는 녹색생활문화 확산을 위해 출시한 'KB국민 그린카드'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녹색생활관련 경품을 제공하는 'Green을 꺼내면 경품이 팡! 팡!' 행사를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행사기간은 이달 1일부터 내달 31일까지이며 행사기간 중 KB국민 그린카드를 발급받고, 이 카드로 30만원 이상 이용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Green상(100명) 하이브리드 자전거, Eco상(30명) KTX 패밀리상품권 10만원권을 각각 제공한다. 당첨자는 11월21일 KB국민카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 우리금융, 보여주기식 탈피한 진정·지속성 봉사활동 '으뜸

우리금융지주는 '함께 하는 우리, 행복한 세상'이라는 슬로건 아래 소외이웃 지원을 비롯해 ▲지역사회 발전, ▲환경 보전, ▲학술교육 및 장학 ▲문화예술 지원, ▲체육 진흥 등 임직원이 혼연일체로 이웃과 함께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팔성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해 진정성, 지속성 등의 이론을 갖고 앞장서서 그룹 내 모든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더불어 시민과 함께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을 펼쳐나가는 중 이다.

## 하나은행 `자녀와 아름다운 숲 찾기` 행사



하나은행(은행장 김정태)은 단풍의 계절 가을을 맞아 120여명의 고객을 대상으로 `2011 자녀와 함께 아름다운 숲 찾아가기` 행사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행사는 1993년부터 하나은행이 매년 개최하고 있는 대표적인 문화행사로서, 숲 체험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자연 사랑의 중요성을 교육하는 체험학습 프로그램이자 가족 참여를 통해 따뜻한 가족애를 키우고자 계획된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10월 22일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에 위치한 하나산에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숲 전문 해설가들이 진행하는 숲 해설, 숲에 대한 퀴즈 등 다양한 숲 체험 활동과 농촌마을을 체험과 같은 레크리에이션 활동 등으로 진행된다.

## 신한은행, '신(新)녹색기업대출' 출시



신한은행은 서민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저소득층의 수수료 면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초 생활 수급자, 새희망홀씨 대출 고객(사회적 지원 대상자), 차상위계층 고객 등을 대상으로 자동화기기 송금수수료 및 현금 인출 수수료를 전면 면제한다. 수수료 면제는 제한적으로 실시해왔던 혜택을 영구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저소득 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자동화기기 수수료를 면제함으로써 서민 금융비용 부담완화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대구은행, 사회적책임 업계 1위 올라

대구은행이 사회책임투자 전문리서치회사인 서스틴베스트가 최근 국내 400개 상장기업의 2010년 기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성과를 종합 평가한 결과, 은행·카드 업종에서 1위로 선정돼 AA 등급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평가 결과 사회적 책임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업종별 1위 기업들은 주가 수익률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대구은행은 전했다. 2008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AA등급 기업들의 주가수익률은 48.14%로 같은 기간 코스피200 수익률보다 31.20%가 높았다. 대구은행이 사회적 책임성과에서 최고등급인 AA를 받은 것은 재무적 성과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지역사회와의 상생활동, 지역사회 공헌 등의 비재무적인 성과에 대해 중요성을 인정받은 결과로 보인다. 한편 대구은행은 2011년 5월 17일 DGB금융지주로 전환 되었으며, DGB금융지주는 이후 금융권 최초로 종합적인 사회공헌을 표방하는 'DGB 금융 사회공헌재단'을 설립할 예정이다. 대구은행 하춘수 행장은 앞으로도 꿈과 풍요로움을 지역과 함께하는 다양한 노력들을 'DGB 금융 사회공헌재단'을 주축으로 펼쳐나가겠다는 소감을 내놨다.

## 삼성화재 '날씨연계보험'



삼성화재는 날씨 변화에 따른 비용과 이익 손실을 보상하는 날씨연계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기온, 강수량, 강설량 등 일정한 날씨 기준을 설정하고 해당 기준을 초과하는 날씨 변화가 발생하는 날마다 피해액을 보상해주는 상품이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8월 한 달간 하루 4mm 이상의 비가 온 날수를 15일, 일일 보상한도액을 1000만 원으로 정한 가입자는 비가 온 날수가 18일일 경우 기준 초과일 3일에 대해 하루당 1000만 원씩 총 3000만 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이밖에 삼성화재는 현대해상, 동부화재와 함께 자연 재해에 대비한 풍수해보험을 취급 중이다. 또 자연 재해에 가장 취약한 농업 분야에 발생한 피해액을 보상하고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농작물재해보험도 선보이고 있다. 지난 3월 일본 대지진 발생 이후에는 지진보상플랜을 출시해 화재, 연소 손해와 붕괴, 파손, 파문힘 손해는 물론 손해 방지와 긴급 피난으로 발생한 주택이나 점포의 재산 손실을 보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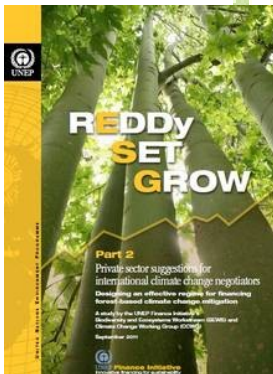
## H 현대해상

### 기후변화 상품출시

날씨보험의 출시에 시장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6월 삼성화재가 날씨연계보험을 내놓은 이후 최근 현대해상도 신종 날씨보험을 선보였다. 이 보험은 지수형으로 날씨변동에 따른 기업의 매출감소 및 비용 발생을 보상하는 새로운 상품이다. 강우량, 적설량, 평균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 등의 변동으로 발생한 매출과 이익 감소, 비용 증가 등의 손해를 보상한다. 현대해상은 최근 보험기간 중 태양광 발전소에서 일정기준의 일사량 미달 때 피보험자가 운영하는 발전소의 매출액 손실을 보상해주는 계약을 했다. 회사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아직 날씨보험에 대한 시장의 수요가 그리 크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갈수록 늘고 있는 자연재해 때문에 소비자와 보험사 모두 날씨보험 개발에 관심이 많다"고 성장을 낙관했다.

## New Publications

### REDDy-Set-Grow: Part II - Private sector suggestions for international climate change negotiators



숲은 경제 성장과 인류의 웰빙을 보장해주는 생태계를 제공하는 자연 속 보물상자이다. 전세계 금융기관들과 UN은 최근 출간한 보고서에서 사막화 방지와 삼림기능 저하 방지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을 경우 치를 수 있는 비용이 무엇인지 고발한다. 새 보고서 REDDy-Set-Grow PartII: Recommendations for international climate change negotiators의 출간과 함께 200여 개 유엔환경기구 금융이니셔티브 회원기관들은 기후변화협약 (UNFCCC) 협상가들에게 개발국 사막화 방지 및 삼림기능 저하 방지를 위한 계획인 REDD+ 를 지지 하도록 호소한다.

[상세내용 참조](#)

## Environmental & Social Risk Analysis Online Course

### 환경 & 사회 리스크 분석 온라인 교육 과정



심층 있는 개인 트레이닝을 제공할 Environmental & Social Risk Analysis (ESRA) 온라인 과정은 매일 일정으로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환경 및 사회 정책관련 사례에 대한 여러 가지 활동에 참가하게 된다.

• 온라인 과정 스케줄 : 3주 (월~금, 하루 평균 2시간)

1. 10월 3일 - 21일 (불어)
2. 10월 31일 - 11월 18일 (스페인어)
3. 11월 7일 - 25일 (영어)

• 교육 내용 : 모든 수업은 아래 5개 모듈을 포함

1. 지속가능금융 소개
2. 환경 및 사회 리스크 정의
3. 분류
4. 환경 및 사회 리스크 평가
5. 환경 및 사회 리스크 관리

#### [상세내용 참조](#)





**UNEP Finance Initiative**  
Innovative financing for sustainability



# UNEP FI Korea Group Newsletter

 **ECO-FRONTIER**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1580 DMC 첨단산업센터 6층  
Tel: (+82 2) 3153-77 49 Fax: (+82 2) 3153-7703  
[www.ecofrontier.com](http://www.ecofrontier.com)

